

마음 열기

찬송가 430장을 함께 부르시다.

내가 최근에 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요한일서 4장 1-6절, “어디에 속하였나 보라”

우리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합니다(1-3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1절). 이 세상의 모든 일 내면에는 영적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악한 역사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 진리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막거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줄로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와 찬양 또한 헛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본 모습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마7:15-18). 열매란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과 주변 환경을 말합니다. 타인을 찌르고 상하게 하며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죽이는 나쁜 열매입니다. 반면, 연합하고 살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역사인 것입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이 증거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영의 것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는 쓸모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성도들의 삶을 타락시켰습니다. 이들은 성도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은사만을 드러내는 ‘은사주의’, 행위만 강조하며 서로를 판단하고 찌르는 ‘율법주의’, 세상의 영광과 유익만 드러내는 ‘세상주의’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악한 영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영적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시덩굴이나 잡초를 뽑아야 하듯이, 우리 또한 잘못되고 더러운 것들을 삶에서 뽑아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해서, 그리고 속한 곳이 교회라 해서 방심하기보다, 더욱 성경 진리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역사를 분별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이긴 자입니다(4절).

우리가 영적 역사를 분별할 때, 악한 영의 대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4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고, 그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의 대적 앞에서 이미 이긴 자인 줄로 믿고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진리가 아무리 강한 무기라 해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5-6절).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듣습니다(5-6절). 즉, **내가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오직 말씀만 들리고 깨달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만 따라가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오늘날 우리의 안팎으로 수많은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대적 앞에서 진리로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듣고 말할 때가 있지만, 그 때에 다시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면, 다시 하나님께 속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봅시다. 내가 속한 곳은 세상인가요? 하나님인가요?
2. 나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3. 나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는 무엇이 있나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세상에 속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나에게 이미 진리가 있음에도, 그 진리로 싸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3.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 _ “겸손 :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의 시작”

우리는 모두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겸손한 마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입니다(빌2:3-4).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자기중심성(교만)’입니다. 이 마음에 사로잡히면 공동체 안에서 종이 되기보다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비자적 태도는 복음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며 타인의 시선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을 돌볼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내 필요를 채우려 할 때는 결코 만족이 없지만, 타인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궁극적인 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가르칩니다(빌2:5-7).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섬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기적인 소비자에서 자발적인 ‘종’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은 곳에 임할 때, 우리는 교회 내부의 지체를 돌볼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 밖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 기쁨으로 섬기는 이타적인 공동체로 빚어집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 생명의 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6월 7일

어디에 속하였나 보라

요한일서 4장 1-6절

